

September. 2008

BLOG.NAVER.COM/LGBT2008

가운데

다행히
세상은
LG
BT
AI
Q
언론

와자
변태

안녕하세요 완전변태입니다. 어제 밤에 본 다크에서 게이 커플이 나와서 호모포비아를 짝는데, 웬 열장질. 둘이 사귀는게 부럽더라고요. 오늘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친구에게 '난 그 때 니 옆에서 떨어져 한숨도 못 잤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채워 무려 6장이나 되는 편지를 부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싫어요. 친구로만 기억되는게 그렇게 싫나 싫어요. 청소년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받으려 노동부에서 항의농성을 하는데 "남자가 무슨 남자를 꼬셔" "푸하하" 농담이랍시고 합니다. 잘 먹히긴 하죠. 그 때부터 속상해서 Homo Economics라는 책을 읽었어요. 반응 하고는 흥 오늘도 날씨는 맑고 이성애는 가득찬 망할놈의 세상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워 특별히 원했다기 보단 걷다보니 그렇네요.



고거 아니?

우리도 쉽게쉽게 살고 싶었어

— 완전변태 창간호를 벌리며

요즘 참 말랑말랑한 글이 쓰기 힘들다. 뭔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소곤소곤한 재미가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아무리 쥐어 짜내도

이 망할 뇌에선 단 한 문장도 그런 글을 뱉어내지 못한다.
예전엔 그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의 나는 메말라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고

알파걸 따위가 등장했다지만 일상의 여성들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
성소수자 또한 여전히 일상적 억압과 배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말랑말랑한, 조곤조곤한, 소곤소곤한 재미가 담겨 있는 글,
그런 글을 쓰기에 나에게 있어서 세상이 너무 망할 것이다.

정말로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세계의 메마름을 극복해내며
글을 쓰기에 지금의 나는 역부족인 모양이다.
마음에 드는 글이 만나온다. 화가 난다.

저주를 받아라. 전부. 다.